

코로나가 바꾼 여가 문화



마이크 놓고 아령을 든다

거리두기 해제에도 회식 등 줄며 밤 문화 위축... 노래방·PC방·주점 감소
건강·자기 관리 관심 증가... 헬스장·스포츠시설·피부관리실 빠르게 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마음으로 버텼는데..”

광주시 북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58)씨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 19가 촉발한 이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텼지만, 거리두기 완화에 도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조금만 더 버텨보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거리두기가 풀렸어도 장사는 예전 같지 않다”며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절반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19일 이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꼽혔던 노래방과 PC방 등 주요 생활업종 종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전면 해제됐음에도 근심을 덜지 못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가 여가문화를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건강에 관심이 높아져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업종은 오히려 활기를 띠는 등 자영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7일 국제청의 국제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20년간 여가·놀이 문화로 여겨졌던 노래방과 PC방을 비롯해 회식 문화인 호프전문점과 간이주점 업종의 사업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

지난 5월 기준 광주지역 PC방 사업자 수는 같은 기간 421명에서 387명으로 8.79%나 감소했다.

식당에서 회식을 한 뒤 호프전문점이나 동네 선술집인 간이주점 등 2차를 거쳐 3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던 회식 문화가 코로나 확산 이후 빠르게 자취를 감추면서 이들 업종은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노래방 사업자 수는 코로나 확산 초기인 2년 전 1039명에서 지난해 984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965명까지 줄었다. 2년 전보다는 7.12%, 작년보다는 1.93% 감소한 것이다.

호프전문점 역시 올해 5월 1834명으로 2년 전(2142명)보다 14.38%, 1년 전(1903명)보다 3.2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주점도 올해 148명으로 2년 전(188명)보다는 21.28% 감소했고, 작년(155명)에 비해서는 4.52% 줄어 들었다.

무엇보다 이들 업종처럼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다른 업종들이 거리두기 완화 이후 회복세에 접어든 것에도 대조된다.

코로나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업종인 여행사 사업자 수는 올해 404명으로 지난해(384명)보다 5.21% 증가했고, 2년 전(411명)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PC방과 노래방, 호프전문점, 간이주점 업종의 매출감소 등 피해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로 회식 문화가 사라진 데다, 젊은 세대

들이 사회에 진출해 ‘워라밸’이 확산하면서 여가·놀이문화가 PC방과 노래방, 술자리에 스포츠와 자기관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창업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건강과 운동, 자기관리와 관련 주요 생활업종인 헬스클럽과 스포츠시설, 피부관리, 피부과의원 등 업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역 헬스클럽 사업자는 감염 우려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가 큰 업종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55명에서 올해 305명으로 19.60%나 늘었다.

테니스와 탁구장 등을 비롯한 스포츠시설은 영업도 276명에서 298명으로 7.97%로 증가했고, 실내스키링크장은 140명에서 185명으로 32.14% 급증했다.

이밖에 피부관리업도 1862명에서 2108명으로 13.21% 증가했으며, 피부·비교과 의원도 126명에서 135명으로 7.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진석 현대외식연구소 이사는 “코로나 이후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 분위기가 눈에 띄게 줄고 일찍 퇴근해 개인의 여가를 즐기려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가문화가 운동과 자기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따른 자영업계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고물가·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요인 고조될 듯”

KDI 8월 경제동향

한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하방 위험은 커졌다는 국제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고물가와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8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고물가와 대외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 요인이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가 더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달에도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은 비슷했지만 미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현재 경기 상황은 지난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미래 전망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고물가가 계속되고

미국·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으며 금리 인상도 시차를 두고 (경기)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올라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물가에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6.0으로 전월(96.4)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향후 소비 회복이 제약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경제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역성장했고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4.8%)보다 크게 낮아진 0.4%에 그치는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수출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7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14.1%로 전월(14.8%)보다 소폭 둔화했다.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1.6%에 그쳐 전월(8.3%)보다 많이 낮아졌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의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18.2%로 전월(16.8%)보다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텝’을 단행하는 등 주요국의 금리 상승도 경기 하방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 채납자 숨겨둔 재산 살살이 찾는다

국세청, 특별정리 도입... 현장 추적조사 강화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채납자에 대한 ‘특별정리’에 돌입,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채납자 재산 현장 추적도 대폭 강화한다.

7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채납 기간 2년 이상, 채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채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채납액, 채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악성 채납자를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살살이 찾아 채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채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641명, 법인이 1만3461명이다.

개인 중 채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40대 흥영철

(가타 캠블링 및 배팅업)씨로, 1633억원의 세금을 채납해 2019년 공개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0~2021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제약을 받았던 현장 추적조사를 올해는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방문해 채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후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나 금과 등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또 세금 납부 이력과 재산 현황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채납자별 효율적인 강제 징수 수단을 제시하는 등 채납 관리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시작한 고액·상습 채납자 584명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도 계속 진행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공공배달앱 매출 134억 돌파

출시 1년만에 52만2700여건 주문...가맹점만 7500여 곳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위메프오’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거래액 134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공공 배달앱 위메프오는 소상공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완화와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해 7월에 출시한 배달서비스다.

광주시에 따르면 출시 1년 만에 가맹점 7500여 곳, 누적거래 52만2700여건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배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맹점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6300개소가 신규 입점했으며, 누적 매출액은 134억원을 기록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공공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2%로 민간 배달앱(6.8~12.5%)보다 저렴해 영업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배달 대행 수수료 비용부담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가맹점주 배달수수료 지원, 가맹점 현장 매니저 운영 등 소상공인 혜택을 강화한 정책을 시행하며 가맹점주들의 큰 호응도 얻고 있다.

박정환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현재 즉시 할인, 무료 배달, 페이백, 프랜차이즈 제휴 할인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온라인 홍보 및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광주공공배달앱을 통한 전통시장 장보기 운영시장 확대와 가맹점 배달 수수료 및 가맹점 대상 쿠폰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비자 혜택 강화,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신세계에 ‘전남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전남도는 지난 5일 광주신세계에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신세계 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 2020년 5월 전남도와 ㈜신세계가 우수 농수특산물 생산·공급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협약의 결과물이다. 지난 2020년 광주 대인동에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이후 광주권에 진출하는 두 번째 매장이기도 하다.

로컬푸드직매장이 들어선 광주신세계는 연간 매출액이 7600억원에 달하는 로컬푸드 판매 최적지다. 다년간 직매장 운영으로 판매 비결을 가진 화순 도곡농협이 공모 끝에 위탁 운영을 맡아 성공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전남에서 생산한 열채류, 과일류 등 신선한 농산물과 6차산업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화훼류 등 1000여 품목을 판매할 계획이다. 도시민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내 농가에는 농산물 판로 확보로 소득 증대에 보탬을 줄 전망이다.

한편 현재 전남에는 총 63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운영 중으로, 올해 상반기 총 613억원의 매출을 올려 농업인 소득 향상에 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로또복권 (제102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4	16	27	35	39	45	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460,504,338	10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49,407,718	83
3	5개 숫자일치					1,518,830	2,700
4	4개 숫자일치					50,000	134,097
5	3개 숫자일치					5,000	2,217,201



안산 선수 앙공월드컵 2관왕 축하합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최근 앙공 국가대표 안산(왼쪽) 선수와 김성은 감독을 동구 대인동 은행 본점에 초청해 격려했다. 안 선수는 광주은행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2022 현대 앙공월드컵 4차 대회'에서 2관왕에 등극했다. <광주은행 제공>